

VOL.5

비타민 SEA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





COVER STORY

<비타민 SEA>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C'에 SEA(바다)를 활용한 이름으로, 바다와 해운업에 영양을 보충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계간 소식지(사보)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 기업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해운산업과 관련된 각종 글, 공사 임직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는 정보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발행처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 7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T. 051-795-1500



<비타민 SEA> 소식지는 QR코드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bic.or.kr

KOBIC MAGAZINE CONTENTS



04

해운 INSIDE

마린머니, 짐 로렌스 회장

06

바다로 잇는 NEWS

SEA The Future

08

KOBC 부서탐구

해양금융2부

10

KOBC 뉴페이스

#빛이나는 #나는신입 #자기소개시간

12

MZ세대 따라잡기

이제는 갓생(God生)이 대세!

14

KOBC NEWS

이모저모 해진공

16

해진공 동호회 탐방

마스터셰프 KOBC

18

MONEY & TREND

부동산 신조어

20

비타민 생활백서

22

만렙직딩

직장에서 인기남 인기녀 되는 법

24

스페셜팁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과

26

미각트렌드

세대공감, 전통의 맛을 찾아서

28

문화 소식

32

독자 참여 이벤트

크로스워드 퍼즐



“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는 재도약을 위한
 가능성의 무대이다
 ”



해운 INSIDE

MARINE M O N E Y

해양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선박금융전문 저널 마린머니 Marine Money

마린머니 설립자 겸 회장 **짐 로렌스**
 Jim Lawrence, Marine Money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선박 금융 및 해운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국제적인 물류 허브도시 부산은 동북아 해양, 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해양금융 포럼 공동 개최를 위해 선박금융 관련 세계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마린머니(社) 회장 짐 로렌스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마린머니, 국제적 선박금융 저널로 자리매김하다

마린머니사(社)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런던, 아테네와 싱가포르에 지사를 운영하며 해양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선박 금융저널 발행사이다. 특히 이들이 발행하는 마린머니지(誌)는 1988년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퍼드 시에서 창간돼 현재 세계 선박 금융 시장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선박 금융 전문 월간지로, 전 세계 1,000여 개 선박금융기관이 구독 하는 국제적 선박금융 저널로 자리매김했다.

이 저널은 최신 해양선박금융 거래실적, 주요법률 문제, 업계 성과와 혁신 과제, ESG 및 해양선박 산업보고서까지 분기별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금융 시장전망과 해운산업에 대한 다양한 최신 소식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운산업의 글로벌 전망에 대한 이해와 통찰

력을 가질 수 있다.

마린머니사(社)를 창립하고 35년 동안 경영해 온 짐 로렌스 회장. 세계 경제가 불황기였던 1980년대 중반, 항공 관련 대학을 졸업한 그는 당시 저가 항공사들의 등장에 국제운송의 성장 가능성을 읽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의 미래 가치를 예감한 그는 망설임 없이 마린머니사(社)를 창립했다. 현재 선박 금융은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해양산업의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다.

짐 로렌스 회장은 “해양산업과 해양금융 전문가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해운 및 유관산업 관계자들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린머니사(社)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선박금융포럼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

마린머니사(社)는 저널 외에도 해운 및 유관산업 관계사들을 대상으로 학술세미나 및 시장전망 등 각종 해운 분야 전문 금융포럼을 주최하고 있다. 매년 뉴욕·함부르크·싱가포르 등 전 세계 17개국, 주요 해운 중심지에서 국제 자본 교류와 해양산업을 연결해주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연 6,0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금융 중심도시인 부산에서 2007년부터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022 한국선박금융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포럼은 조선·해운·선박 관련 금융회사와 법률가, 투자자들이 함께 글로벌 이슈를 토론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해양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이 되고 있다.

최고의 경쟁력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부산다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국제물류의 연결점(Node)을 가진 부산은 주택과 교육 시설, 금융기관, 운송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표적인 해양금융클러스터다. 이에 더해 부산은 뉴욕 등 다른 금융 중심 도시와 달리 해양·조선·선박 등 실물과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무엇보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만과 조선소 등 다양한 선박 관련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선박 금융이 발전할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짐 로렌스 회장은 세계적인 선박금융 허브 도시처럼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과 선박금융 관련 기업들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해양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의 두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KEXIM)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전 세계 선박금융 시장의 10위권 내에 진입할 정도로, 해양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짐 로렌스 회장은 “해운의 젊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처럼 공공-민간 기업들이 먼저 부산의 젊은 세대들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바로 글로벌해양도시 부산다운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업무협약(MOU)

2022년 10월 31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마린머니사(社)는 해양진흥공사 본사에서 ‘선박 금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으로 마린머니사(社)의 글로벌 해양·금융산업의 전문 네트워크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해운·조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양산업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함이다.

짐 로렌스 회장은 “지금까지 마린머니사(社)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해양금융 이니셔티브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운산업과 선박 금융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다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유류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짐 로렌스 회장은 이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라고 언급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 금융의 저변확대와 파트너십, 해양지식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해운산업과 선박금융을 책임질 재능 있는 젊은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꿈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마린머니사(社) 짐 로렌스 회장은 “앞으로도 마린머니가 전 세계 해양산업의 선도적인 기업들에게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위기는 기회를, 기회는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무대이므로, 무한한 상상력을 실현해가며 해양·금융 산업의 건강한 향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A THE FUTURE



1

아시아, 러시아 제치고 EU 석유 공급처로 부상

2019년 월평균 천만 톤(EU 내 거래 제외)에 달했던 석유제품 수입량이 2020~2021년에 930만 톤으로 감소하다가, 올해는 7~10월 사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까지 1,030만 톤을 기록하며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발효됨에 따라 EU는 석유제품 수입량 35%에 대한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하며, 반면 러시아는 기존 수출의 약 60%에 대한 신규 구매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EU가 수입한 러시아산 석유제품은 월평균 35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9~10월 EU의 러시아산 수입량은 300만 톤으로, 월평균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의 9월(1,100만 톤)과 10월(1,180만 톤)의 수입량으로 볼 때 러시아산 수입량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아시아가 석유제품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 중입니다. 아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이 러시아 물량을 대체하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점차 상승세에 오르더니 9월에는 러시아를 제쳤으며, 10월에는 월평균 440만 톤까지 도달했습니다.

2

미국과 OPEC+ 관계, 감산 결정으로 오리무중

지난 11월 초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석유 전시회 및 회의(이하 ADIPEC)에서 미국과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화를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ADIPEC 회의에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의 에너지 대표 및 장관들은 OPEC+의 공급 감축에 대한 이견을 표명했고, OPEC+ 발표 직후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UAE는 미국과 관계 유지에 나섰습니다. UAE는 미국과 청정에너지 가속화를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35년까지 미국, UAE 및 전 세계 신흥국에 100기가와트(GW)의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약 141조 8,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 원유의 80% 이상이 아시아로 유입되면서, OPEC+ 감산 발표에 대해 미국이 필요하지 않은 물량을 계속 보호하려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현대글로벌비스, 7억9천6백만 달러 규모 운송계약 체결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11월 초 모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1조 5천억 원(7억9천6백만 달러) 규모의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글로벌비스는 2023년부터 2년간 완성차를 유럽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현대글로벌비스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대형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해외 완성차업체와 2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로부터 대부분 주문을 받아온 현대글로벌비스는 고객층을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계열 매출 비중이 2010년 12%에서 2021년에는 61%까지 증가했습니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4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차량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4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두 번째 터미널 공식 운영 개시

아프리카 중서부 코트디부아르의 최대도시 아비장(Abidjan)에 두 번째 컨테이너 터미널이 정식 개항했습니다.

머스크(MAERSK)사의 자회사인 AMP 터미널과 프랑스 물류회사 Bollore Ports의 공동 투자로 완성된 터미널은 면적 37.5헥타르, 길이 1100m, 수심 16m의 규모로 연간 150만 TEU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의 모든 시설은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되어, 컨테이너 집하 및 운송 속도와 터미널 안전성을 높인 자동화 게이트가 구축됐으며, 온라인 트럭 예약 시스템 등 혁신적인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터미널 개항은 코트디부아르의 교역 증가를 촉진할 뿐 아니라, 코트디부아르-부르키나파소-말리로 이어지는 운송 경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5

컨테이너 수요 급감,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컨테이너 물동량 수치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수요 붕괴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9월 거래량은 1,350만 TEU로, 전 달 8월에 대비 9.5%, 전년도 9월에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시장이 분명히 변화했다”면서, “시장 압력이 해소되면서 항구는 물론 공급망 모두 혼잡이 완화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부터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설 것인지 관측하는 과제만 남아있습니다.

아시아-유럽 구간의 9월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 감소했으며, 2021년 같은 달보다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환태평양 아시아-북미 구간의 거래량도 8월에 비해 16% 감소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24.5%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9월은 일반적으로 수출에 약세를 보여 왔기에, 전월 대비 하락세가 9월과 같은 수준이 될런지는 확실치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물량과 가격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며, 컨테이너 물량 수요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

우-러 전쟁, 대륙 가뭄 등으로 국제 곡물 수급 제동

최근 러시아가 유엔 곡물 협정을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곡물 무역의 기초는 선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의 하천 수위 문제, 아르헨티나의 가뭄, 세계 식량 위기,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세계 곡물 거래 시장이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 전망이 다소 어두운 편이지만 어느 정도 완화되는 긍정적인 조짐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하면서 2007~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수확량이 예상됩니다. 흉작으로 인해 유럽의 옥수수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브라질뿐 아니라 흑해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옥수수 수확량 저조로 타격이 큰 미국의 경우, 미시시피강의 저수위로 인해 운송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가뭄으로 재배 속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크라이나산을 대체할 수입량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르면 12월부터 브라질산 옥수수를 수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운산업 최전선, 대한민국 선박금융을 책임지는

해양금융2부

해운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업구조 때문에 선박 조달과 운용에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금융지원이 필수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해 온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산업 최전선에서 거친 풍량을 유유히 헤쳐온 든든한 갑판장!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2부를 찾았다.

컨테이너 선사를 제외한 모든 선사가 사업영역

지난 1월 공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글로벌 변화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사업영역을 일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해양금융2부는 해양금융1부, 정책지원부와 함께 사업운영본부로 편성됐다.

해양금융1부가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해양금융2부는 컨테이너 선사를 제외한, 탱커선사와 벌크선사, 그리고 중소선사까지 5~60개 선사가 사업대상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영역이 대출에 국한된다면, 공사의 사업영역에는 보증까지 포함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신조 금융이 주 업무지만, 공사는 신조 금융뿐 아니라 중고선 매입은 물론, 보유 선박의 유동성까지도 사업영역이다. 중소선사를 위한 별도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2019~2020년도 코로나19로 선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도 해양금융2부다.

다양한 커리어가 모여 시너지 효과 내는 해양금융2부

해양금융2부의 가장 큰 강점을 꼽는다면 바로 전문성이다. 해양금융2부에는 국내 최고의 선박금융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다. '선박금융 전문가'는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사이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말한다. 공사의 주요 미션이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면, 실질적인 업무들은 해양금융2부 선박금융 전문가들의 두뇌와 손끝에서 완성된다.

해양금융2부에는 금융사, 해운사, 조선소 출신의 금융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금융 상품을 디자인하는 금융사 출신들과 선사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해운사 출신들, 그리고 조선소 전문가 등 다양한 커리어가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선박금융 엘리트 양성하는 등용문

해양금융2부는 대한민국 선박금융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와 더불어 국내 최고의 선박금융 엘리트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베테랑 선배들을 통해 실무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고, 자신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현재 부서는 중견선사금융1팀, 중견선사금융2팀, 중기상생금융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미니 인터뷰> 해양금융2부 천용건 부장



올 한해 가장 뿌듯한 성과 한 가지만 든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성취감을 느낀, 또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카타르 프로젝트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지연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거래다. 이런 국가적인 딜에 15척의 선박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사가 기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선사들과 경쟁하는 자리에서 공사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평소 부서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나의 고객을 성공시켜라' 나의 고객을 성공시키면 나도 공사도 자연스럽게 성공한다. 고객을 성공시키는 게 나뿐만 아니라 공사의 미션이라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일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임리 레포팅(timely reporting)이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든 직급별로 이해가 같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다. 밑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나가고 위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나간다.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되거나 상황이 그전에 보고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가 되면 바로 보고하는 것을 평소 강조하고 있다.

공사 직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공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금융 업무다. 공사 내 금융을 담당하는 업무는 공사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금융 업무를 담당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꼭 이것만 해서 전문성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빛이나는 #나는신입 #자기소개시간



또다시 신입 소개 시간이 돌아왔다. 해진공의 슈퍼루키, 그들에게 아홉 개의 질문을 던졌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질문이라 돌아오는 답변 역시 모두 비슷할 것 같지만 누구 하나 똑같은 답이 없는 게 여지없이 개성 강한 MZ세대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한국해양진흥공사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 Q1. 별명 / MBTI 유형
- Q2.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 Q3. 첫 월급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 Q4. 본인을 어벤져스 캐릭터에 비교하자면?
- Q5. KOBC 신입사원으로 현재 본인에게 필요한 스킬은?
- Q6. 나는 이럴 때 마상 입는다.
- Q7. 다른 신입에게 없는 본인의 강점 한 가지를 뽑는다면?
- Q8. 동료나 선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Q9. 올해 잘 산 템 (MZ세대's 꿀템)



- 1. 웰시코기 / ESTJ
- 2. 가족들이랑 다 같이 손잡고 강강술래 한번 했음
- 3. 가족들이랑 외식을~ 첫 월급은 나보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 4. 작지만 강한 엔트맨
- 5. 모니터 많이 보니까, 축축한 눈 관리가 우선!
- 6. 마상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ㅇㅂㅇ
- 7. 정리를 잘하는 게 가장 큰 장점! “깨끗한 책상 보여드리겠습니다!”
- 9. 노트북, 워치, 핸드폰 등에 사용할 멀티포트 충전기



1. 송이버섯 / ISFJ
2. 친구랑 맥주 타임을 가지고 자축함
3. 멋진 가을을 만끽하며 가족들과 여행을
4. 든든하고 예쁘고 능력이 출중한 캡틴마블
5. 취향 파악 잘하기, 예를 들어 간식 취향 같은...
6. 상대방이 내 얼굴을 쳐다보며 한숨 쉴 때
7. 남들보다 리액션이 좋다
9. 광명을 찾고 안광이 생기는 온열 눈 안마기



1. 달걀 / ESTJ
2. 지인들과 약속 잡고 “내가 다 사겠다”고 말해버림.
3. 부모님 용돈 드리고 옷 사러 가기
4. 몸의 분자 밀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비전
5. 항상 생글생글 잘 웃기
6. 나 빼고 먹다가 걸렸을 때
7. 고민을 잘 들어 주는 게 강점
8. 업무 꿀팁 전수 요망합니다
9. 불 안 꺼도 되는 무드등



1. 부엉이 / ISTJ
2. 기은 인턴
3. 취직한 개념으로 밥 쓰기
4. 완다, 캡틴, 멘티스 등 신중하고 걱정이 많은 타입
5. 빠릿빠릿하게 눈치 잘 보기
6. 나 빼고 놀 때, “나 빼면 큰일 나”
7. 사람의 특징을 잘 기억하는 강점, 특히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8.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9. 휴대용 스텝다리미



1. 조롱이, 지렁이 / ESTJ
2. 엄마랑 전화 통화하며 같이 움 ㅠ.ㅠ
3. 우선 부모님 용돈 챙겨 드리는 게...
4. 로켓, 스파이더맨, 로키, 스타로드 등 장난기가 넘치는 캐릭터
5. 리액션 잘하기
6. 뒤에서 내 얘기가 슬금슬금 들려올 때
7. 독일어를 할 줄 안다는 점, 말 그대로 할 줄만 안다
9. 우디향이 강한 바다로션



1. 동가, 멀대 / ISTJ
2.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방 구하러 다님
3.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나머지는 자취 준비를 위해 이케아 쇼핑
4. 그루트
5. 맛집 알아보기
6. 야! 너! 이름이나 호칭이 아닌 함부로 부를 때
7. 타자가 빠르다! 야근을 줄일 수 있는 현란한 500타
8.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9. 조말론 우드세이지 앤 시슬트 향수



1. 남한산성, 알카리성, 단동(시옷 발음이 안되서) / INFJ
2. 하필이면 코로나 격리 중이었음, 가족 연락 후 바로 기절함
3. 수영, 테니스 등 취미생활을 위해 투자
4. 낙천적이지만 컨디션 안 좋으면 표정이 변하는 아이언맨, 가모라 등
5. 인사 잘하기
6. 고심한 의견이 무시당할 때
7. 능숙한 운전 실력! 그리고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동기피셜)
8. 긴장하면 말이 꼬이는데 “못 들은 척 해 주세요”
9. 헤드폰(소중한 내 귓구녕)



언제 적 플로(YOLO)?

이제는 갓생(God生)이 대세!



갓생 = GOD + 生

‘갓생’이란 신을 의미하는 ‘GOD(또는 MZ세대 전용 접두어)’에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신조어로,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오지게 멋진 삶’이다. 단,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멋진 삶은 화려하고 우아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상을 촘촘히 채우는 성실한 삶이 진정한 ‘갓생’의 의미다.

갓생이 트렌드가 된 이유

원래는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 유행된 말이다. 덕질에 과몰입하던 팬 활동을 접고 학업, 직장 등 현실 생활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은 생산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로 범위가 확장됐다. 특히 ‘갓생’이 트렌드가 된 이유는 코로나19감염증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 범위가 좁아지자, 그 시간을 슬기롭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갓생’이란 유행어가 시대상과 맞아떨어졌다.

프로 갓생러의 인생 역전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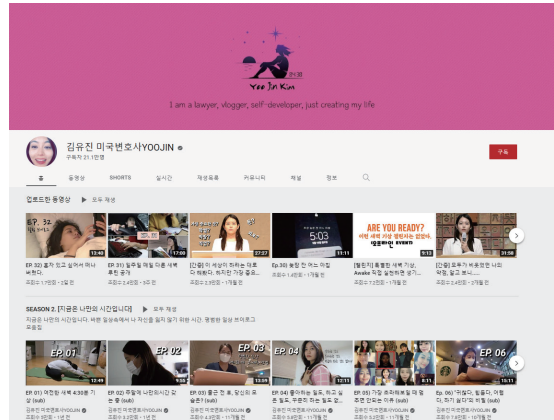
“단 10분이어도 좋다. 작은 성취를 위한 작은 도전,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 유튜버 힘옴(필라테스 강사)



필라테스 강사이자 모델인 힘옴은 20대 초반 교통사고로 폐쇄공포증,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고통에 빠져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걷기와 맨몸 운동,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작은 운동 습관을 통해 건강과 인생의 전환점을 찾은 것이다. 현재는 구독자 130만 명의 ‘힘옴’ 채널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

사진 자료 유튜브채널 ‘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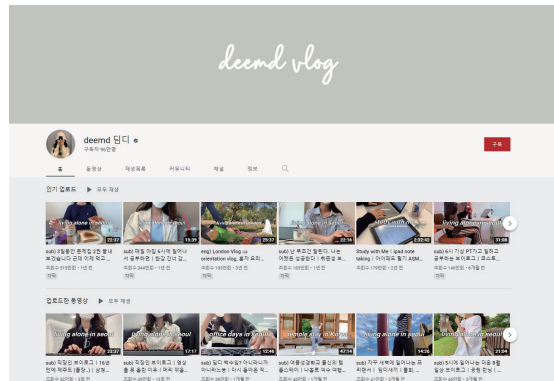
“새벽은 배신하지 않는다” - 유튜버 김유진(미국 변호사)



김유진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와 조지아주 2개 주의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로 대한민국에 새벽 기상 열풍을 일으켰다. 그녀는 새벽 시간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때만큼은 약속이나 업무 등 예상치 못한 일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상으로 이십 대에 명문 로스쿨에 편입할 수 있었고,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영화제 참가 등 수많은 목표를 달성 했다.

사진 자료 유튜브채널 ‘김유진 미국변호사’

“평범한 일상생활 속 동기부여!” - 유튜버 덤디(deemd)



중국 교환학생 시절부터 취준생을 거쳐 직장인까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갓생 요소(6시 기상, 아침 운동, 자격증 공부, 부업 등)를 보여주며 공감을 이끌고 있다. 현재는 9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로 성장했다.

사진 자료 유튜브채널 ‘유튜버 덤디’

갯생 실천 LIST



아침

- 명상으로 마음 챙기기
- 공복 유산소하고 아침 챙겨먹기
- 출근길 경제 지식 쌓기



Tip!

넷플릭스에서 "헤드스페이스" 명상 영상 보기
"런데이" 어플 활용하기
팟캐스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듣기



점심

- 점심시간에 전화영어로 영어회화실력 UP!
- 라운지에서 책 대여해서 읽기
- 업무 중간 중간 바른 자세 유지하기



Tip!

"링글", "민병철유폰" 어플 활용하기
읽고 싶은 책은 신청할 수 있어요!
유튜브 "앉아서 하는 요가 스트레칭" 따라 하기



저녁

- 멀티캠퍼스 수강하기
- 윈데이 클래스 취미 찾기
- 해진공 동호회 활용하기
- 오늘 하루 복기하기



Tip!

"프립", "클래스101" 어플 활용하기
"복기", "MOODA" 어플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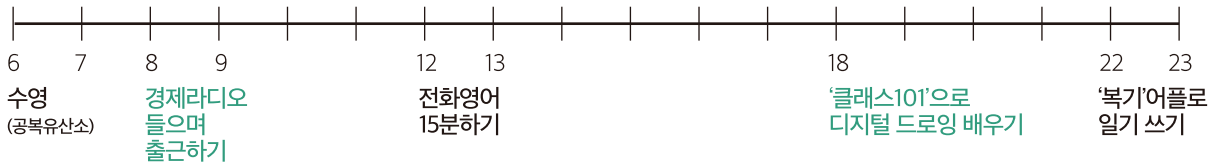
시님의 갯생 하루

기상

오전 업무

오후 업무

취침



<갯생 빙고> 당신의 갯생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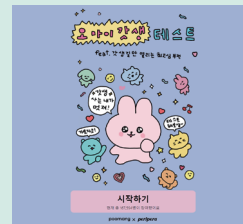
퇴근 후 혹은 주말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특특이 제2 혹은 3외국어 공부하고 있다	한 달에 한 권 이상씩 꾸준히 독서를 한다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를 했거나 하고 있다	'너 진짜 열심히 산다'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있다	자신의 생활을 기록한다 (일기, 블로그, 포폴 등 무관)	나만의 취미생활이 있다	규칙적으로 잠자고 일어난다	여러 분야에 관심사나 흥미가 많은 편이다
'그런 건 어떻게 알고 있냐'는 등 정보통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다양하다	나만의 개인기가 있다	걸어다니는 나무위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친구들, 지인들과도 자주 만난다
여행이나 기분 전환하러 다니는 걸 좋아한다	자기 전 하루를 낭비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	시간 내어 문화생활을 종종 즐긴다 (영화, 전시회 등)	유행하는 밈 트랜드를 관심 있게 보고 수용하는 편이다	갯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의 집 방은 나름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새롭게 배워 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	장단기적 경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있다	학점이 3.8 / 4.5 이상 된다	스스로 동아리나 대외활동을 여러 번 참여했다

내가 정말 갯생을 살고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아래 빙고 칸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칸에 동그라미를 친다. 동그라미를 그린 칸을 연결해보자. 1~2칸 연결되면 당신은 '평범한 인간', 만약 세 칸이 연결되면 '예비 갯생러', 네 개 이상 칸이 연결된다면 당신은 진정한 '갯생러'다.

<갯생 테스트> 당신의 갯생 유형은?



QR을 찍고 링크에 접속해 보자.
테스트가 끝나면 부적과 함께 자신의 갯생 유형을 단 1분 만에 알게 된다.



시님의 갯생 유형 끊임없이 혼자서 빠릿빠릿 움직이는 당신! 본인은 적당히 움직이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항상 바빠 보이는 게 화장!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맡은 일을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숨겨진 은근한 허당미로 웃음을 주는 편 갯생 뭐 별거 있어? 어~ 보람할게~ 마인드로 내가 뿌듯하면 그게 갯생이지! 스스로 다짐했던 것을 이루어내면서 나만의 알찬 갯생을 살자!

사진 자료 poomang.com

KOBC NEWS

이모저모 해진공



부산은행-유엔씨티(주)-(주)동방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7월 13일(수) 부산은행, 유엔씨티(주), (주)동방과 '울산신항 유엔씨티(주)의 항만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울산신항개발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항만터미널의 사업 시행자와 전문 위탁운영사가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사는 국내의 항만물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지원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항만물류 부문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및 해외 주요 거점의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2022년 윤리경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7월 14일(목) '2022년 윤리경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신규 윤리경영위원 위촉식을 비롯하여 올 상반기 윤리경영 업무 진행 경과와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한 위원회 보고, 윤리경영체계 외부진단 영역의 중간보고회 및 강평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출범한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계획과 세부추진사항 점검, 자체 청렴도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공사의 중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공사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추진단, 윤리경영사무국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안착시켜,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을 실천할 방침입니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실시

2022년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따라 1기(22.08.26~09.23), 2기(22.10.07~10.28) 실무교육이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실시했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전문성 강화 지원과 인재육성을 목표로 해운·항만·물류업계 실무자를 위한 해운산업 특화 실무교육사업입니다. 올해는 해운 시황, 선박금융, 해외항만투자, 정기선 및 부정기선의 영업전략, 글로벌 환경규제와 ESG 대응 등의 전문과정으로 구성해 전면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

업무 효율화 및 종이 자원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페이퍼리스 업무환경'을 도입했습니다. 공사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디지털화·연택트화 등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윈도우 기반 태블릿 PC'를 사용해 회의에서 발생하는 출력물을 절약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고객과의 비대면 업무 활성화 추진하는 한편, 출력물 인쇄 절감 솔루션을 도입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탄소중립 경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외 항만물류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05
(MOU SIGNING CEREMONY KOCB & CJ LOGISTICS)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 체결

9월 2일(금) CJ대한통운과 '국내외 항만물류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국내외 항만물류 부문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와 CJ대한통운은 △국내외 항만물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및 사업 기회 발굴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 경쟁력 있는 금융구조 모색 및 투자 지원 △국내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06

'22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실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9월 21(수)부터 30일(금)까지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에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사의 선대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또는 전년도에 신조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신조선박 인수 이후 3개월 이내에 노후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제3국에 매각하는 경우에 한함) 예정인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대상이며, '22년 예산 중 잔액(49.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7

'22 하반기(2차)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은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BWMS), 황산화물 배출 저감 설비(스크러버), 수전 장치 및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장치(ESD) 등 선박의 친환경 설비·설치 소요자금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이자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08

대학생 기자단 해지니 2기 발대식

9월 30일(금) 한국해양진흥공사 대학생기자단 '해지니 2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공사는 지난 8월 26일(금)부터 9월 13일(화)까지 해운산업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국민에게 알릴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해 총 18명, 6개팀을 선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식, 해지니 1기 우수활동팀 시상식, 기념촬영, 활동계획 소개 등으로 진행됐으며,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대우조선해양과 부산항 신항 HPNT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해지니 2기는 올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09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 합동 청렴캠페인

9월 21일(수) 부산역 일대에서 부산지역 해양수산 공공기관 합동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이 소개된 리플릿과 코로나 방역물품을 배부하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청렴캠페인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항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0

전 직원 참여 소방안전훈련 실시

지난 11월 25일(금) 공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운대 소방서 및 HDC랩스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으며, 교육은 화재대피 훈련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실제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공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스트레스 예방 교육, 안전자료 공유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 확보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공 요리왕을 가려라!

마스터셰프 KOBC '쿠킹클래스' 현장

지난 10월 19일(수) 경남정보대학 라쿠치니아카데미(해운대구 우동)에서는 '마스터셰프의 쿠킹클래스'가 열렸다. 마스터셰프(회장 정영두, 총무 김경태)는 요리와 음식을 통해 친목과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사내 요리동호회로, 이날 모임에서는 회원 11명이 참가해 요리를 배우고, 직접 조리한 음식을 시식하며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동호회 고문을 맡은 최영정 이사가 참석해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미션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와 슈림프 감바스, 두 가지 요리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만 실습하는 걸로 사전에 조율했다.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리지만, 단순한 조리법에 비해 깊은 맛을 내기 쉽지 않아서, 내공이 여지없이 드러나기도 한다.

강의가 시작되면서 회원들의 눈과 귀가 바빠졌다. 저마다 요리라면 나를 자신 있다고 자부하던 이들도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강의를 경청했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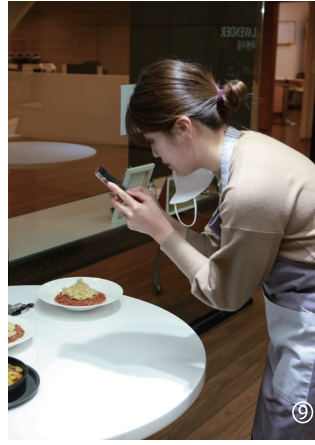
③



④



⑤



강의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실습으로 이어졌다. 강의를 들을 때 만해도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았지만, 막상 직접 요리도구를 만지게 되니 여유로운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모두의 표정이 파스타의 심오한 면발 앞에 진지 모드로 바뀌었다.

하지만 요리하는 즐거움을 어떻게 감추랴. 마스터셰프 모임은 음식을 만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즐거워지는 셰프엔터테이너 (chef+entertainer)의 시간이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시간이다.

실습 후에는 직접 조리한 음식에 무알콜 샴페인과 와인을 곁들이며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쿠킹클래스를 준비한 최원진 주임은 “마스터셰프는 매월 1회(수요일) 쿠킹클래스를 열고 있다”며, “음식 사랑과 맛에 대한 탐구 정신이 뛰어난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①④ 요리 실력을 발휘하는 유려한 손놀림

③ 요리 완성

②⑤⑦ 마스터셰프 쿠킹클래스는 일상에서 여유를 찾는 셰프엔터테이너의 시간

⑤⑥ 본격적인 실습 시간, 급진지 모드로 바뀐 회원들의 표정

⑨ 음식 앞에 빠질 수 없는 인증샷

부동산 신조어

역세권은 알겠는데..., 옆세권은 뭐지?



부동산시장은 유행어와 신조어가 넘쳐나는 곳이다. 간혹 어려운 용어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유만 알아도 이해하는데 힘들지 않다. 예를 들어 배송서비스에서 등장한 신조어의 경우, 새벽 배송이 가능한 주거 권역을 '쿠세권(쿠팡 배송 지역권)', 쓱배송(이마트)이 가능한 곳 '쓱세권'이라 하고, 다이소가 가까이 있는 권역을 '다세권'이라고 부른다.



역세권

역세권은 보통 지하철역에서 반경 500m 이내를 말하는데, 지하철 2~3개 라인이 겹치는 더블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을 황금권역이라고 부른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 옆 동네에 살고 있다면 '옆세권' 주민이 될 수 있다. '옆세권'은 높은 집값 때문에 도심에 살지 못하고, 도심 밖으로 나가야 했던 이들을 위해 탄생한 용어지만, 생활에 불편한 몇 가지만 감수하면, 가격 이점을 챙길 수 있는 실속형 권역으로 통한다.

슬세권

경리단길이나 해리단길 등 핫플레이스에서 정말 부티나게 보이고 싶다면, 한껏 멋 부리는 대신 '슬리퍼를 신고 가라'는 우스갯말이 있다. 진정한 고수들은 외지에서 온 걸 구태여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다. 슬세권은 슬리퍼(slipper)와 세권의 합성어로, 편하게 슬리퍼를 끌고 다니면서 편의점, 카페, 극장, 쇼핑몰 등 각종 편의·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을 말한다. 비슷한 용어로 하이퍼로컬(Hyper-local)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활동 반경이 더 좁아진 주거권역을 뜻한다.

행세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정보의 암흑기에는 어떻게 맛집을 찾았을까? 세무서나 경찰서, 또는 구청이나 시청 주변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들어가면 80%는 성공할 수 있다. '행세권'은 은행이나 행정기관이 가까운 주거 권역을 말한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능한 시대이지만, 주민센터 부근에만 살아도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편의서비스가 많다. 또 지역의 랜드마크로,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욕세권

'욕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 옛말처럼 부동산시장에서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구설수가 끊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인기 매물이 되는 권역을 '욕세권'이라 한다.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의미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관심 대상은 시세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물론 욕세권 가격이 다른 곳보다 더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없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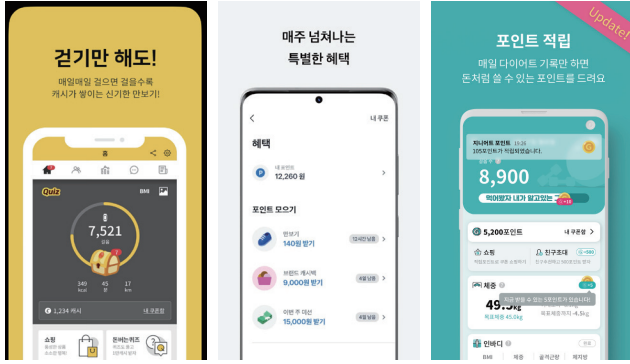


알뜰한 당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공략법

소소하게 모아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몇 년 전부터 마일리지·포인트 혜택이 야박하게 변했다. 포인트 적립률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된 곳도 있으며,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리워드 과정을 최대한 불편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쥐도 그만 안 쥐도 아쉬울 게 없었던 게 이제는 그곳 포인트 하나로 뒤끝이 작렬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헤자스러운 기회들이 남아 있으니, 고물가 고금리 시대, 소소하게 누릴 행복을 포기하지 말자. 여기서서는 신용카드, 페이 등 결제나 충전에서 제공되는 마일리지는 제외하고 오로지 근면 성실한 출책만으로 적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애플의 기본은 만보기앱부터



십 원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이들의 공통점 한가지! 휴대폰에 만보기앱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벌 수 있기에 애플의 기본 중 기본으로 통한다.

대표적인 만보기앱인 '캐시워크'는 백 보당 1포인트를 지급하며, 한 달 3천 포인트(하루 만 보 기준)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토스 만보기, 지니어트, 캐시타임 등 앱스토어에는 수많은 만보기앱이 있다. 또 에이치포인트(H.POINT)와 씨제이원(CJ ONE) 같은 그룹 통합 멤버십 어플에도 만보기 기능을 탑재해 앱 재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가성 비와 포인트 활용도 등을 따져서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앱을 설치하자.

만보기 앱의 단점으로는 앱을 실행했을 때 휴대폰이 느려지거나, 포인트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앱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 적립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 미리 체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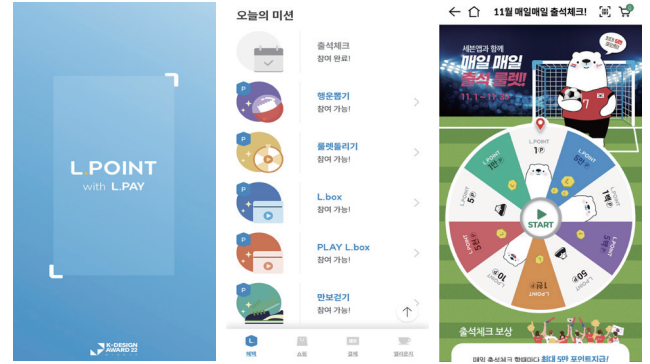
설문 조사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고?



사람들의 취향이 초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리서치기관의 역할이 더 커졌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조사원이 일일이 돌아다녔지만, 지금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된다. 리서치 플랫폼에 패널로 가입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설문지가 날라온다. 성실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면 참여도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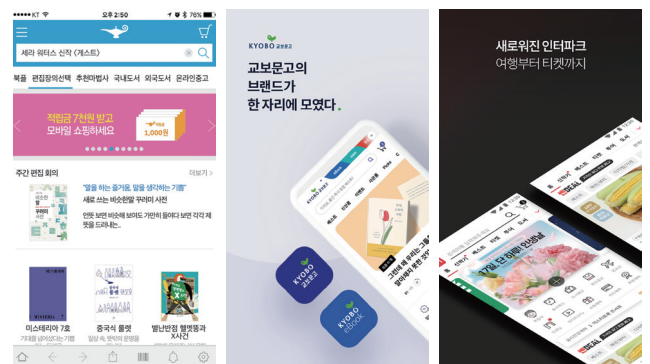
대표적인 리서치 플랫폼으로 엠브레인 패널파워, 트루나(Tuluna), 패널나우(Panel Now) 등이 있다. 글 읽기가 귀찮고 복잡한 서베이 양식이 싫은 사람들은 이미지 투표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헤이폴(Hey Poll)을 추천한다.

호환성이 높은 엘포인트(L.POINT)



엘포인트(L.POINT)는 엘페이(L.PAY)와 함께 롯데멤버스가 운영하는 통합 멤버십 마일리지 서비스이다. 적립률은 낮은 편이지만 타 포인트와 호환성이 높고 현금화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게 장점이다. 엘포인트 적용 대상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하이마트 등 계열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엘포인트 앱에서는 '오늘의 미션'을 통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행운뽑기, 롤렛돌리기, L.box, PLAY L.box 등 2~4시간 주기로 포인트 적립 찬스가 온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이 필요한 번거로운 요구사항은 없다. 10~30초 정도 플레이되는 랜덤 광고만 시청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두 번째는 '라임'이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거나 PC에서 접속(lime-in.co.kr)이 가능하다. '모두의 설문' 참여 시 2포인트(매일)가 적립되며, '나만의 설문' 응답으로 10~500포인트가 쌓인다. 또 30일 동안 '라임나무 키우기' 출석 체크를 하면 10~100포인트가 적립된다. 세 번째로 '세븐일레븐' 어플에서는 출석 롤렛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롤렛을 돌리면 1~50,000포인트까지 랜덤으로 엘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엘포인트는 아시아나대한항공 마일리지, 페이 코포인트, 스마일캐시, SKT모바일쿠폰, 네이버페이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포인트로 한 달에 한 권 책 사기



이렇게 열심히 모은 포인트로 무엇을 하면 가장 보람될까? 가장 경제적인 소비로 책을 추천한다. 대형서점 앱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책 한 권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려진 인터넷서점의 경우 회원이라면 이벤트를 통해 기본적으로 매달 2천 원 상당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에 만보기 앱에서 교환한 온라인문화상품권 3천 원, 설문 조사 참여로 모은 모바일상품권 5천 원, 엘포인트 2천 원을 끌어오면 문고판 소설 한 권 정도는 내 돈 한 톨도 안 쓰지 않고 살 수 있다.

교보문고의 경우 자주 앱 접속을 하면 혜택이 더 커진다. 출석 체크로 적립한 e교환권을 사용하고, 바로드림 10% 할인 서비스까지 이용한다면 더 저렴하게 책 한 권 구입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는 부장님도 인싸?

직장에서 인기남 인기녀가 되는 법

어느 직장이든 업무 능력과 별개로 인기남 인기녀가 있다. 선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도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남다른 인기를 누리는 이들을 요즘 유행어로 부르자면 '인싸'다. '인싸'는 인사이더(insider)의 줄인 말로, 무리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 성실하고 일은 잘하지만,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외톨이 직원도 있다. 인기는 과도한 친목질(자신만의 집단을 만드는)이나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만인에게 사랑받는 '사무실 인기쟁이 직원'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 직장 생활의 기본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인싸되는 비결을 공개한다.

인싸를 만드는 올바른 자세

인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자세 교정이다. 간단하고 단순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다. 사무실을 둘러보자, 인기남 인기녀는 분명 자세가 바르다. 사람들은 불안정한 모습보다 힘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끌리기 마련이다.

전신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어깨가 안쪽으로 휘어졌는지, 목이 굽었는지, 구부정한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는 정면을 응시한다. 몸이 개방되면 사람들의 접근이 쉬워진다.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는 주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자세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버릇이다. 평소 팔짱을 끼거나 손으로 목을 가리는 등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보자. 자세가 바르게 교정되면 자신감은 물론 목소리도 달라진다. 목소리 톤이 더 크고 깊은 울림이 만들어진다.

인싸가 되는 대화법

직장 내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스피커(Speaker) 보다 리스너(Listener)가 되어야 한다.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말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보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호감도가 더 높다. 한번을 말했으면 두 번을 듣고 세 번을 맞장구치는 게 좋다. 단 너무 과하게 호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고개만 끄덕여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대화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달변가 이전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아무리 편한 사이라 할지라도 말하기 전 머릿속으로 한두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 또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상대의 말이 끝나면 반드시 배려의 질문을 던지자. 질문은 사소한 것일수록 좋다.

아싸의 옷을 벗자!

인싸가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다. 직급과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회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때로는 주위 소식 통이 많아 직장 내 여러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도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여기저기에 불러 다니다 보니 자신만의 시간이 줄어든다.

직장에서 인기남 인기녀 유형을 묻는 한 앙케트 조사에서 친절왕형이 1위(28.9%)를, 알잘딱깔센형이 2위(23.2%)를 차지했다. 친절왕형은 잦은 업무 요청과 질문에도 짜증이나 생식 내지 않고 친절히 알려주는 유형을 말하며, 알잘딱깔센형(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은 성실하고 일 처리가 깔끔한 스타일을 말한다.

인싸의 반대말은 아싸(Outsider)다. 아웃사이드의 약자로 무리에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 아싸 의미가 인간 관계를 최소화하는 사람에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어느 노선을 타야 더 유지할지 가능하기 힘들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아싸의 요건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아! 나도 모르게 오피스 빌런?

직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는 '오피스 빌런'이 되는 것만은 피하자.

'오피스 빌런'에 대한 한 설문 조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갑질·막말형이 21.1%, 성과가 좋으면 내 탓, 안 좋으면 남 탓하는 내로남불형이 13.5%, 업무보다 월급만 내세우는 월급 루팡형이 13.4%로 나타났다. 그 밖에 손톱을 깎거나 양말 벗고 근무하는 등 안방처럼형(7.9%), 동료 의존도가 강한 인 핑거 프린스·프린세스형(7.4%)도 있었다.

또 다른 설문 조사에서는 여성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남성 직원 유형으로 은근히 잘난 척하고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스타일이 1위(응답률 77.1%)를 차지했다. 또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꺼리는 여성 직원 유형으로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신경질적인 여직원(46.5%)이 뽑혔으며, 잘난

척하는 스타일(44.4%)이 그 뒤를 이었다. 민폐남 민폐녀가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인기 대열에 편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스페셜팁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과, 다른 과일과 함께 두지 마라?

—
성질 급한 사과, 자두, 살구...
고독을 좋아하는 키위, 감, 배...
과일에도 성격 있다



사인머스켓, 패션후르츠, 하얀 딸기 등 과거 보다 즐길 수 있는 과일 종류가 많아졌지만, 동서고금 막론하고 인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던 과일이 있다. 뉴턴의 만유인력, 세잔의 사과, 백설 공주, 심지어 애플 로고까지. 그렇다, 사과다. 물론 국내에서는 딸기가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지만, 인류에게 사과는 특별한 과일이다. 사과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과일이지만 맛과 품질은 천차만별이다. 그 이유는 왕성한 호르몬 작용 때문에 빨리 숙성되고, 또 빨리 시들기 때문이다.

과일의 숙성과 노화의 비밀

과일이나 채소가 생장하고 시드는 데는 호르몬이 작용한다. 식물에도 동물처럼 호르몬이 있는데, 에틸렌(Ethylene)이라는 물질이다. 파릇파릇한 초록색 바나나가 노랗게 되는 과정도, 굴을 주무르면 당도가 올라가는 것도 에틸렌의 영향 때문이다. 기체형태인 에틸렌은 과일을 수확한 후에도 기공을 통해 가스로 배출되는데, 합성을 촉진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에틸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식물 조직으로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숙성 타이밍을 잡아라

에틸렌을 활용하면 과일을 빠르고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 있지만, 반면 과일 종류에 따라 무르게 되거나 엽록소를 분해해 누렇게 변색시키는 등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과, 토마토, 바나나, 살구, 복숭아, 자두, 망고 등은 다른 과일에 비해 수확 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이다. 키위, 감, 배처럼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과 함께 둔다면 성숙과 노화를 촉진해 쉽게 부패 될 수 있다. 특히 사과, 자두, 살구 등은 에틸렌 발생이 많으면서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로 스스로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통과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

에틸렌이 채소에 미치는 영향

에틸렌은 엽록소를 분해하므로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을 채소와 함께 두면 채소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어젯밤까지 싱싱하던 브로콜리, 파슬리, 시금치가 오늘 아침 누렇게 변색 되었다면 십중팔구 범인은 '에틸렌'이다. 양상추에 반점이 생기거나 아스파라거스가 질겨졌다면 역시 에틸렌의 소행이다. 에틸렌이 강한 과일과 함께 두면 당근에 쓴맛이 강해지거나 양파가 건조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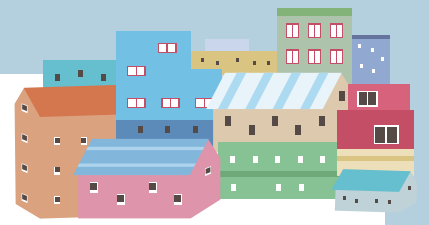
과일·채소의 현명한 보관 팁

과일·채소를 보관할 때 에틸렌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품질은 유지하고 저장성을 높일 수 있다. 사과, 복숭아 등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은 되도록 다른 과일과 함께 두지 않고, 따로 보관한다. 특히 상처 입거나 병충해에 걸린 과일은 스트레스로 인해 에틸렌이 증가하므로 멀쩡한 과일과 함께 두지 말고 보관 전에 골라내는 게 현명하다.

그렇다면 에틸렌을 감소시킬 수는 없을까? 에틸렌은 산소 농도가 8% 이하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2% 이상일 때 감소한다.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 등으로 개별 포장해 냉장고 저온에서 보관하면 에틸렌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에틸렌, 역으로 활용하기

에틸렌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서 서서히 익히는 과일을 후숙 과일이라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바나나, 토마토, 감, 키위 등이다. 덜 익은 바나나, 뽕은 감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 채소와 같이 보관하면 작물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하므로 후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980년대 청춘의 초상 부평동 족발거리

최근 야시장 덕분에 유명해졌지만, MZ세대에게 '부평동'이란 지역명은 낯설다. 위치를 설명하자면 남으로 남포동, 북으로 보수동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면적 대부분이 재래시장으로 이뤄져 있다. 동네 토박이가 아니면 국제시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은 엄연히 다르다. 중장년, 노년층은 보통 이 일대를 강동시장이라고 부른다.

부평동은 원래부터 돼지고기로 유명한 곳이다. 돼지갈비, 돼지국밥, 순대, 감자탕 등 시장을 중심으로 반주 곁들이기 좋은 식당들이 행인들의 발걸음을 잡는다. 부평동 일대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던 곳을 꼽는다면 족발 골목(중구 부평동2가)이다.

국제시장 사거리에서 흑교(검정다리길)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 좌우측을 따라 족발 전문점이 모여 있다. 1959년 '서울 족발'이 최초 개업한 이후로 80년대부터 하나둘씩 생겨나 한창 전성기를 누렸던 90년대 초에는 십여 개에 이르렀다.

부평동 족발만의 특징이라면 식당마다 맛과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다. 고기를 삶은 방식도 제각각이고, 식당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스도 있다.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별미는 냉채족발! 따뜻한 온족발 특유의 부드러움이 싫다는 이들은 냉족발을 선호한다. 시원한 소주 한 잔에는 쫄깃하고 매콤한 냉족발의 식감이 어울린다는 거다. 족발 외에도 오향장육과 해물족발 등 신세대 취향을 저격한 다양한 메뉴들이 있다.



한양족발

주소 : 부산 중구 광복로 13
영업시간 : 오전 10시~새벽 1시 (매일)
메뉴 : 족발(대/중/소), 냉채족발(대/중/소)
문의 : 051-246-3039



원조부산족발

주소 : 부산 중구 광복로 13-1
영업시간 : 오전 10~24시 (매일)
메뉴 : 족발(대/중/소), 냉채(대/중/소), 장육(대/중/소)
문의 : 0507-1412-5359



오륙도족발

주소 : 부산 중구 광복로 15-1
영업시간 : 오전 9시~새벽 2시 (매일)
메뉴 : 냉채(대/중/소), 해물(대/중/소), 장육(대/중/소)
문의 : 051-241-0134

바다의 낭만과 달콤한 숯불 향 광안리 불고기거리

해운대와 광안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똑같은 바닷가지만 해운대와 광안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지형적으로 광안리는 해운대보다 해변 간격이 더 좁고 짧다. 그래서 광안리는 카페, 술집, 음식점 등 소형 상가가 일찍부터 발달했다. 상식적으로 더 넓고 긴 해변이 인기 있을 것 같지만, 바다는 그저 도울 뿐 주인공은 따로 있다.

광안리 주변으로는 의외로 전통을 잇는 맛집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원조' 경쟁이 붙을 만큼 인기를 누리는 메뉴는 불고기다. 80년대부터 광안리 뒷골목으로 연양불고기 전문점이 들어서기 시작해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주식 콩나물해장국처럼 광안리는 타지역의 향토음식을 제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광안리 불고기도 연양(울산시 울주군)의 석쇠불고기가 원조다. 양면 석쇠 사이에 과일 양념으로 다진 쇠고기를 숯불에 바짝 구워내는 게 연양식 불고기다.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육즙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울 때 적당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광안해변로 거의 중간 지점으로, 해변을 산책한 후 불고기 한 점 먹고 다시 바닷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코스다. 금련산역 3번 출구에서 내려오면 해변의 마지막 블록에서 찾을 수 있다.



진미 연양불고기

주소 :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33번길 7
영업시간 : 오전 11시~밤 10시 (매일)
메뉴 : 연양불고기, 등심구이, 꽃등심구이, 등심슬라이스
문의 : 051-753-1632



광안리 연양불고기부산집

주소 :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 32
영업시간 : 오전 11시~밤 9시 30분 (매일)
메뉴 : 연양불고기, 등심, 숙성한우, 낙엽살
문의 : 051-754-1004



연양불고기 부산집본가

주소 :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33번길 8
영업시간 : 오전 11시~밤 10시 (매일)
메뉴 : 불고기, 등심, 살치살, 안거미, 새우살
문의 : 051-754-3456

콘서트

22/23 연말&연초 기대되는 콘서트

다시 돌아온 그들의 열정적인 무대 현장에서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볼까?

2022 김범수 콘서트 '명품이즈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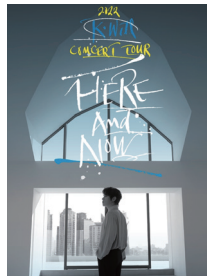
일시 : 2022.12.31(토) 18:00
장소 :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공연시간 : 120분
한 해 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명품BACK(백)'
지난 2019년 20주년 콘서트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콘서트
탄탄한 라이브와 다채로운 구성으로 팬들에게 다가온다.

자우림 단독 콘서트 'MERRY SPOOKY X-MAS'



일시 : 2022.12.30(금) 19:30 / 12.31(토) 18:00
장소 : 부산 KBS홀
공연시간 : 120분
어둡지만 신비롭고, 조금 이상해도 유쾌한 자우림만의 겨울 파티가 온다.
명곡부터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새 음악까지,
수상한 산타들의 선물 같은 시간에 초대한다.

2022 케이윌 'HERE AND NOW'



일시 : 2022.12.24(토) 18:00 / 12.25(일) 17:00
장소 : 부산 KBS홀
공연시간 : 150분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대!
다시 돌아온 가수 케이윌의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케이윌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페셜 퍼포먼스로 단 한 번뿐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포레스텔라 Concert 'The Royal in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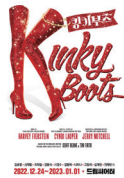
일시 : 2023.01.14(토)~2023.01.15(일) 18:00
장소 : 벡스코 오디토리움
공연시간 : 150분
따뜻한 감성으로 마음을 전하는 포레스텔라, 2023년 1월 그들이 전하는 겨울이야기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며 소리의 전율을 오감을 전하는 고품격 음악의 숲으로 초대하는 포레스텔라 콘서트가 열립니다.

· 뮤지컬 ·

굿바이 2022! 헬로우 2023! 뮤지컬과 함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마음을 채워줄 춤과 노래의 향연

세상의 편견에 통쾌하게 맞서는, 뮤지컬 '킹키부츠'



기간 : 2022.12.24(토)~2023.01.01(일)
시간 : 금요일 오후 20:00 / 토, 일 14:00, 19:00 (12.26~28 공연 없음)
장소 : 드림시어터
공연시간 : 155분
201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킹키부츠'는 팝스타 신디 로퍼의 신나는 음악과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 등으로 스테디셀러 쇼 뮤지컬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1979년 영국 노샘프턴의 신발 공장에서 있었던 실화로,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의 구두공장을 물려받은 '찰리'가 편견과 억압에 맞서는 여장남자 '롤라'를 만나 특별한 신발 '킹키부츠'를 만들면서 회사를 살리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2년 만에 돌아온 국내 공연은 전 석 매진을 기록 중이다.

락밴드 연습생들 감옥에 가다 뮤지컬 '프리즌'



기간 : 2022.12.22(목)
시간 : 19:30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
공연시간 : 100분
사기를 당한 가수 지망생 청년들이 돈을 갚기 위해 은행을 털다가 체포된다. 탈옥에 성공한 이들은 돈을 숨겨 놓았던 자리를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는 클럽이 들어서고, 숨겨 놓은 돈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클럽 밴드에 취직하게 되는데... 컬투 정찬우가 만든 코믹 락뮤지컬 '프리즌'은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음악과 퍼포먼스, 짜임새 있는 연출, 컬투 특유의 웃음 코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배우와 관객이 함께 극을 만들어나가는 '관객참여극'으로 진행된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모두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유진과 유진'



기간 : 2022.12.30(금)~12.31(토)
시간 : 금 19:30 / 토 14:00, 19:00
장소 : 부산시민회관
공연시간 : 100분
알아주는 모범생 인생을 살아온 작은 유진과 공부와는 담뿍했지만 털털하고 구김 없는 큰 유진이 중학교 2학년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는데... 상처를 마주하며 당당하게 살아온 큰 유진과 기억을 강제로 삭제당해 혼란을 겪는 작은 유진이 들려주는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
뮤지컬 '유진과 유진'은 이금이 작가의 청소년 소설이 원작으로 어린 시절 성폭력을 겪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심어송라이터 안예은이 작곡을 맡았다.

젤리클 고양이들의 환상적인 축제, 뮤지컬 '캣츠'



기간 : 2023.01.06(금)~2023.01.15(일)
시간 : 월~금 19:30 / 토, 일 14:00, 19:30 / 수 14:00, 19:30
장소 : 드림시어터
공연시간 : 160분
전 세계가 사랑한 명작 오리지널 내한 공연 '캣츠'는 고양이 특유의 유연함을 고스란히 녹여낸 안무가 특징이다. 자유로우면서도 매혹적인 고양이들의 생동감 가득하고 은은한 달빛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고양이들의 놀이터, 새로운 수명을 받을 고양이를 선정하기 위한 무도회가 열리는 스토리로 처음 선 보인 1981년부터 아직까지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불린다.

원데이클래스

뜻깊은 추억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과
일상의 여유를 만끽하는 색다른 문화 체험

핸드빌딩 미블링, 색소지 도자기 공방 “예기 도자기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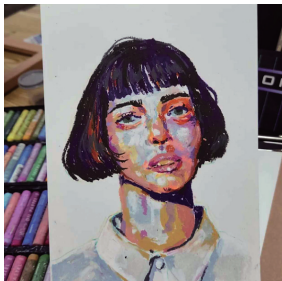
전화번호 : 0507-1392-5293
 운영시간 : 월~금 10:00~19:00 / 토 18:00~20:00
 매장위치 : 강서구 신호산단2로 49번길 스마트빌 1층
 소요시간 : 1시간 30분~2시간
 손으로 하나하나 빚는 테이블웨어 또는 모빌, 오브제, 악세서리, 인센스 트레이 등 비정형 또는 모양틀을 이용한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자기 클래스

나만의 러그 만들기, 터프팅 공방 “하루 터프팅 스튜디오“



전화번호 : 0507-1324-0090
 운영시간 : 매일 10:00~19:00
 매장위치 : 해운대구 해운대로 802 7층 701-3호
 소요시간 : 3~4시간
 터프팅건을 사용하여 원단에 여러가닥 실을 심는 직조기법인 터프팅으로 만드는 러그나 쿠션커버, 거울 프레임 등 여러 가지 섬유공예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터프팅 클래스 ‘반려동물 입장 가능’

화사하고 꾸덕한 오일파스텔, 미술 공방 “그림소풍”



전화번호 : 0507-1338-3074
 운영시간 : 화~금 11:00~21:00 / 토, 일 11:00~19:00
 매장위치 : 북구 만덕대로 78번길 5 2층
 소요시간 : 2시간
 초보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으며 최대 A4사이즈에 원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부드러운 질감의 오일파스텔로 직접 그려 볼 수 있는 미술 클래스

아기자기 귀여운 디저트 캔들 공방 “샤이닝드림”



전화번호 : 0507-1373-7408
 운영시간 :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번길 33 나동 111호
 매장위치 : 전포동 전리단길
 소요시간 : 1시간 30분
 특별하고 하나뿐인 나만의 캔들, 리얼한 케이크와 디저트를 연상 시키는 모양에 리얼한 생크림을 이용한 귀여운 캔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캔들 클래스

시간

세상을 움직이는 지식의 흐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인문학 서적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지식의 흐름을 살핀다.

위어드

조지프 헨릭 (지은이) / 유강은 (옮긴이) / 21세기북스



서구의(Western), 교육 수준이 높고(Educated), 산업화된(Industrialized), 부유하고(Rich), 민주적인(Democratic) 사람들. 세상은 이들을 'WEIRD(위어드)'라고 부른다. 오늘날 국제 사회의 주류라고 여겨지는 이 집단은 역사 속에서 등장한 세계의 많은 지역,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대다수 사람과 달리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에 집착하고, 통제 지향적이며, 동시에 낯선 사람을 신뢰한다. 과연 이 집단은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심리를 갖게 된 걸까?

하버드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 조지프 헨릭 교수는 문화와 제도와 심리가 어떻게 서로를 모양 짓는지를 탐구하고, 이런 사실이 우리 인간의 가장 개인적인 자아 인식과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대규모 사회·정치·경제적 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한다.

지나치게 연결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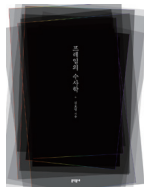
마르쿠스 가브리엘 (지은이) / 이진아 (옮긴이) / 베가북스



정보는 범람하고, 앞으로의 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개인은 자칫 삶의 방향성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흐름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독일의 천재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개인에는 '신실재론', 공동체에는 '윤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이 책은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우리와 우리 시대가 겪는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세계에 바이러스가 침범하면서 봉쇄 조치와 제도의 변경 등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삼시간에 변했다. 국가와 국가도 정치·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이어지면서 권력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타인과 지나친 연결 또한 '나'라는 정체성을 흐트러지게 만든다. 마르쿠스는 '나'를 잃어가고 원치 않는 모습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요받는 개인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프레임의 수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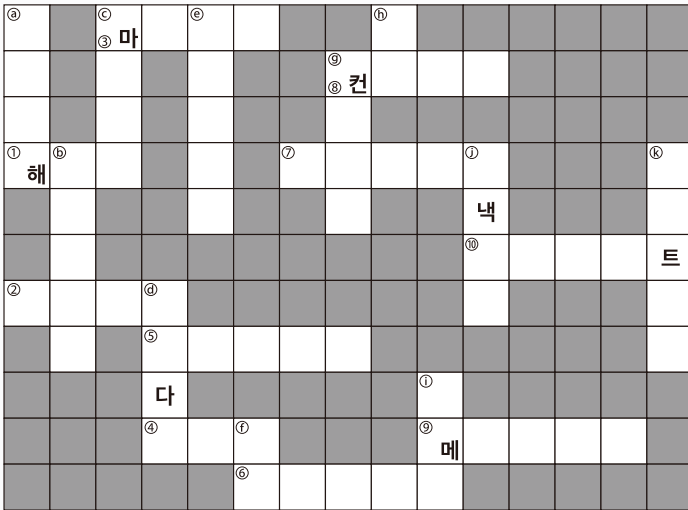
김호영 (지은이) / 문학동네



이 책은 모든 시각예술의 핵심 요소인 '프레임frame'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책이다. 프레임은 이미지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즉 '시각 대상'으로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저자는 시대별로 장르별로 프레임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싹트고 어떻게 그 의미작용이 바뀌며 우리의 미학적 사유를 부단히 새롭게 자극해왔는지, 다양한 도판 자료와 더불어 여러 미학자 - 철학자의 관점을 비교하며 그 사유의 흐름을 살핀다. 이 책에서는 김기영, 박찬욱, 홍상수 등 한국 영화감독은 물론 차이밍량, 오즈 야스지로를 비롯해 루미에르 형제에서 장 르누아르, 장뤼크 고다르, 프랑수아 트뤼포, 엘프리드 히치콕, 프랑수아 오종 등 여러 영화감독의 작품들을 '프레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다.



크로스워드 퍼즐



이벤트 참여 방법

1.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고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kobc2022@naver.com
인증샷과 성함/휴대폰번호를
위 이메일로 전달해 주세요.

3.



음료 기프트콘 30명 증정
성실하게 푼 크로스워드 퍼즐
일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활용 후 즉시 폐기됩니다.
설문기간 : ~ 2022.12.31.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연락 예정

독자 설문 조사

1

<비타민 SEA>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R코드 접속

2

더 좋은 사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비타민 SEA>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로 열쇠

- ① 국민에게 해운산업 및 공사를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 중인 대학생 기자단의 명칭
- ② 공사는 `해양안전을 위한 0000물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수협과 `사회공헌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기통, 수중라이트, 구명조끼 등 0000물품을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에 지원해오고 있다.
- ③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KOBC 0000 컨퍼런스는 선박 금융 및 해운 시장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해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3년 만에 현장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 ④ 하던 일을 마물러서 끝내는 분량.
- ⑤ 환경과 인권, 노동 관행, 조직 지배구조, 공정한 운영 관행, 소비자, 지역 사회 참여, 사회 개발 면에서 국가나 기업이 지켜야 할 공적 책임.
- ⑥ 공사는 부산지역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역 5개 기관 과 함께 `00000 무상보급 업무협약`을 맺고 위치 추적장치인 00000 140대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 ⑦ 지난 8월 공사는 업무 효율화 및 종이 자원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00000 업무환경`을 도입했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탄소중립 경영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 ⑧ 여러 나라가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력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나 모임을 의미하는 라틴어.
- ⑨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 ⑩ 색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 색채 연출을 통해 이미지의 부가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한다.

세로 열쇠

- ① 공사는 노사 공동 선포식을 열고 4대 괴롭힘 발생 원인을 예방하고 발생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4대 괴롭힘이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 0000 등을 말한다.
- ②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 ③ 미국에 본사를 두고 그리스 아테네와 싱가포르에 지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리딩 해양금융 정보제공 업체로, 매년 뉴욕·함부르크·싱가포르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해양금융 관련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 ④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안 좋은 일도 있기 마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 ⑤ 미국의 그림동화 작가 타샤 튜더가 홀로 가꾸어 온 정원 일 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화원으로 유명하다.
- ⑥ 뭇뚱이 별러 나눔.
- ⑦ 공사는 한국산업은행, 멀티에셋자산운용과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0000 확보를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지원과 유관 산업 성장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⑧ 유기 화합물의 주요 구성 원소, Carbon.
- ① 겨울철 별미로 청어나 콩치를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여 바닷바람에 건조 시킨 것.
- ① 5~15분의 짧은 시간 동안 간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
- ①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해 컨테이너, 화물, 작업자, 작업정보 등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항만.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 문서보안

비밀문서는 반드시 세절하여 소각
전출 또는 퇴직 시 모든 비밀문서 반납



업무 시 영업비밀 보호 의무 준수

“너만 알고 있어” 식의 업무상 비밀누설 엄금
외부인이 민감정보 요청 시 공식절차 거쳐 제공



업무 시 외부방문객 출입 보안

주요시설 외부인 출입 엄격히 관리
외부인 면담은 접견실 이용



출퇴근 시 출퇴근 시 정보보안

빈손 출근, 빈손 퇴근 원칙
정보 저장매체는 무단 반·출입 금지



컴퓨터 사용 시 컴퓨터 사용 보안

PC 3단계 패스워드(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설치
자리 비울 때 반드시 로그아웃



컴퓨터 사용 시 통신보안

업무용 PC로 파일공유사이트 접근 금지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공유 금지

